

부산일보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017면 경제 11.4 x 10.3 cm

김호일 해양금융종합센터장 취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김호일(사진) 무보 투자금융본부장이 해양금융종합센터장에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호일 신임 센터장은 오는 2020년 9월까지 해양금융종합센터(이하 센터)를 대표해 정부·유관기관 협력, MOU 체결 등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무보는 센터 간사기관으로 해양금융협의회, 원스톱상담센터,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의 운영을 담당한다. 김 센터장은 “신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 해운사 선박 확충과 조선사 수주가뭄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2014년 9월 무보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부산에 출범시킨 기관이다.

현재 센터에는 3개 기관의 전문인력 80여 명이 배치되어 조선·해운업계 지원, 해양금융서비스(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출범 후 4년간 6조 원(106척)의 공동금융을 주선했다. 또한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총 2조 7000억 원 예정)을 통해 최근까지 조선·해운 동반성장에 7100억 원을 지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이투데이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021면 사람들
6.0 x 12.5 cm

김호일 무보 투자금융본부장 해양금융종합센터장에 취임

김호일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금융본부장이 10일 해양금융종합센터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센터장은 무보 해외투자금융부장, 투자금융총괄실장 등을 지낸 투자전문가다.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해양금융센터를 대표해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 그는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신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 해운사 선박 확충과 조선사 수주 가뭄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2014년 무보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공동 설립한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해운 금융 전문 지원 기관이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아주경제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021면 종합 9.6 x 6.1 cm

김호일 해양금융종합센터장 취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김호일 투자금융본부장(사진)이 해양금융종합센터 센터장에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소재 해양금융종합센터는 2014년 9월 무보,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김 센터장은 2020년 9월까지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대표해 정부·유관기관 협력, MOU 체결 등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노승길 기자 noga813@

이데일리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024면 오피니언·피플
6.0 x 13.0 cm

“해양금융허브 역할에 충실” 김호일 해양금융센터장 취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김호일(사진) 투자금융본부장이 해양금융종합센터장에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센터장의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부산에 소재한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지난 2014년 9월 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공동 출범한 기관이다. 조선·해운업계 지원 및 대출·보증·보험·투자 등 해양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에는 전문인력 80여명이 일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해양금융종합센터 간사 기관이다.

김 센터장은 “신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 해운사 선박 확충과 조선사 수주가뭄 해소에 기여하겠다”면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금융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윤 기자 yoon@